이와타테 신사

기시쿠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이 오래된 신사는 원생림에 둘러싸여 있으며 후쿠에에서 가장 성대한 가구라가 봉납됩니다.

이 신사는 804 년, 구카이(774~835)라는 승려에 의해 인근의 미야코지마 섬에 세 명의 바다 여신을 모시기 위해 창건되었습니다. 14 세기 말, 당시 지배자였던 고토 씨는 신사를 새로운 영주의 거처인 기시쿠 가까이로 이전했습니다.

매년 9 월 중순에는 큰북, 피리, 징을 울리며 가구라를 추는 연례 축제가 열립니다. 미코(무녀)와 가면을 쓴 춤을 추는 사람이 관객에게 둘러싸인 작은 다다미 무대에서 춤을 춥니다. 대부분의 춤이 민화와 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묘사한 것으로서 인기가 높은 사자춤은 사자와 덴구의 대결을 곡예처럼 묘사합니다.

참배길에는 등롱을 올려둔 돌담이 늘어서 있으며 원생림의 나무들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인 원생림은 오랫동안 수목의 정령을 공경하기 위해 신사 경내에서 톱과 손도끼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존속되어 왔다고 여겨집니다.